

내 고향 곡수에서 피어나는 ‘5월’의 커피향

“5월은 꽃이 피는 계절이어서 모든 좋은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예고해 주기 때문이죠.”

커피숍 이름을 ‘5월’로 작명하게 된 배경을 물었더니 오미홍씨(81년생)는 ‘희망’을 말했다. 그건 아마도 고향에 돌아와 귀향창업을 계획하면서 오미홍씨가 그린 미래에 대한 기대가 아닐까 싶다.

얼마전 도문시 월청진 곡수촌에 자리잡은 ‘5월 커피숍’을 찾았을 때 커피숍 주위로 이어지는 시골 풍경과 농촌 특유의 시원한 공기가 마음을 끌었다.

“외국에도 나가보고 외지에도 오래 있었어요. 그러다 아이가 커감에 따라 아이 곁에 있어야겠다는 생각으로 고향에 오게 되었고 귀향창업을 계획하게 되었어요.”

커피문화가 핫하게 떠오르면서 연변에서는 도회지뿐만 아니라 도시를 벗어난 교외에서도 특색 커피숍들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다. 나아가 많은 귀향창업 젊은이들은 한발 앞선 경영 리념을 오세워 농촌의 가옥을 향촌 특색이 짙은 커피숍으로 업그레이드하여 많은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고 있다.

평소 커피에 관심이 많았던 오미홍씨도 이런 흐름을 재빨리 읽었고 2023년에 고향 곡수촌으로 돌아와 촌에 빈집으로 남아있던 친척집을 점찍었다. 보수작업을 한다고 해도 16년이나 비워두었던 집인지라 창업을 시작하면서 망설임이 없었다면 거짓



말이다. 하지만 커피산업 발전에 확신을 가진 오미홍씨는 장식 과정에서 농촌집의 틀을 보존하면서 향촌 풍격을 살렸다. 동시에 실내장식은 간단하고도 아늑한 느낌을 강조했다. 당해 국경절 연휴 ‘5월 커피숍’ 마당에 캠핑 텐트를 설치한 후 개업했는데 예상보다 많은 손님들이 방문했다. 그때 비로소 하던 되겠다는 신심을 얻었다고 오미홍씨는 웃었다.

요즘 현대인들은 자연의 숨결을 느끼며 정신적인 안정을 찾기도 하고 마음의 힐링을 얻기도 한다. 하여 화려하고 현대적인 도시 커피숍도 좋지만 잔잔하고 목가적인 공간에 대한 관심도가 식지 않고 있어 주말이나 휴식시간을 리용해 북적이는 시내를 벗어나 조용한 교외로 향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의 발걸음을 잡을 만한 색다른 포인트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오미홍씨는 여름에는 둘러앉아 즐길 수 있는 시원한 빙차, 겨울에는 난로에 끓이는 차와 난로에 굽는 고구마, 옥수수 등 특색 메뉴들을 출시해 ‘5월 커피숍’에 와야만 맛볼 수 있는 메뉴판을 구성했다.

“도문 시내에서 뿐만 아니라 연길에서도, 훈춘에서도 찾아오시는 분들이 꽤 됩니다. 한번 오셨다 단골이 되신 분들도 꽤 있구요.” 주변 도시에서 온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외지 단골이 늘어나는 것을 보면 국민의 결실같이 성취감을 느낀다고 오미홍씨는 기쁨을 나누었다.

그런가 하면 소셜 플랫폼에 주기적으로 업로드하는 오미홍씨의 농촌 생활 일상이 많은 공감을 사고 있다.



/ 김가혜 김영화 기자

연길시, 문삼원 레저공간 사용 투입

연길시에 또 하나의 레저공간인 문삼원이 사용에 투입되면서 ‘연길특화미화’ 행동에 새로운 성과가 추가되었다.

문삼원은 친자활동을 주제로 한 공원으로서 연길시 중화로 4기와 서산거리 교차로 동북쪽에 위치해있다.

총투자는 2,140만원, 부지면적은 1만 2,500평방미터로 공원에 60개의 주차자리를 기획하고 풍구장, EPDM 경주로 등 운동시설을 배치하여 시민들의 다양한 운동 수요에 만족을 주고 있다. 록화면에서 개살구, 주목 등 수목들이 정원 안에 우

뚝 서있으며 주변의 푸른 나무들과 어우러져 생기 넘치는 생태공간을 형성하고 있다.

공원에 들어서면 눈에 띄는 ‘문삼원’ 표지판과 연길 로고의 조합이 ‘비주얼 담담’ 역할을 하면서 아름다움과 식별성을 모두 갖춰 활력으로 차

연기가 모락모락 나는 굴뚝이며 농촌의 뜰에서 뛰어노는 강아지와 고양이이며 손을 뻗으면 닿을 것 같은 푸른 산이며... 절주가 느린 농촌생활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무한한 동경을 불러일으켰던 것이다.

사회관계망서비스의 탄력을 받아 곡수촌에 놀러 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상당히 고무적이다.

“내가 살던 고향이 흥성흥성해지면 그것도 행복이죠. 우리 커피숍을 시작으로 식당도 들어서고 상권이 형성되어 우리 마을이 다같이 잘살았으면 좋겠어요.”

오미홍씨의 말에 따르면 외지에서 온 손님들은 커피숍에 들렀다가 식사까지 해결하고 가려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또 온 김에 주위를 려행하고 싶거나 농촌에서 재배하는 채소에 대해 궁금해하는 분들도 꽤 되더라고요.”

오미홍씨의 소개로 뒤집의 채소가 팔리고 옆집의 닭도 구매물이 높아졌다고 하니 이 또한 마을에 불어온 변화이기도 하다.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아침시장에 가지고 가던 채소들을 문앞에서 팔 수 있어 판매자도 구매자도 상호 만족도가 상당하다.

“요즘은 또 저기 옆에 고기집이 들어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지금 한창 장식중이라고 하던데 마을이 점점 좋은 방향으로 변화가 생기는 것 같아 너무 뿌듯해요.”

‘농촌커피숍’이 각광받으며 도시 소비자들의 힐링레저에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해주었을뿐더러 ‘커피와 관광의 융합’으로 향촌 진흥에 새로운 풍경선을 더해주고 있다. 또한 창업자들은 향촌의 우세와 특색을 발굴해 문화관광 소비가 ‘관광식’에서 ‘물입식’으로 전환할 수 있게 이끌어줌으로써 향촌관광이 새로운 경제성장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길이 열렸으니 팔을 걷고 열심히 뛰어야죠. 내 고향의 긍정적인 변화에 조그마한 힘을 보탬 수 있음에 일하는 보람을 느낍니다. 그리고 더 많은 젊은이들이 각자의 노후를 갖고 고향에 돌아와 더불어 살아가는 그 날도 기대해봅니다.”

귀향창업으로 고향에서 열정을 꽃피우는 오미홍씨는 의미있는 일을 하는 지금이 행복하다며 미래를 그렸다.

/ 김가혜 김영화 기자

결만촌은 어떻게 캠핑카 ‘집결지’로 되었을까?



3년전, 연변 인재유치 프로젝트를 통해 도문시 월청진 결만촌에 배치받은 하윤룡은 ‘무로 주차, 수도와 전기 공급, 조선족 음식 제공’이라고 적힌 홍보 전단지들 들고 두만강변에서 캠핑카를 따라다니며 홍보했다. 보잘것없는 듯한 홍보 전단지가 이날 폭염 속에서 19대의 차량을 촌으로 끌어들이 줄은 누구도 예상치 못했다. 현재 이곳은 새롭게 탈바꿈되어 관광객들 마음속의 왕궁 야영지로 부상했다.

G331 길립 구간 코스의 관광 붐을 타고 많은 관광객들이 잇달아 이곳을 찾으면서 주차 문제가 갈수록 불거졌다. “주변에 리상적인 주차장이 없다는 관광객들의 반영을 듣고 캠핑카 야영지를 건설하면서 향촌관광의 열기가 뜨거워졌다.” 결만촌당지부 서기 하윤룡은 부지면적이 1,300평방미터에 달하는 야영지에 2개의 주차장, 50개의 캠프, 40개의 소형차 주차자리를 설치하고 24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 샤워부스, 공용 주방, 공용 충전기 등 시설을 마련하여 관광객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야영지 건설 초기에 촌민들은 한편으로는 쓰레기와 소음으로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칠까봐 걱정하고 또 한편으로는 관광객 상황이 혼잡하여 안전우환이 있을까봐 두려워했다. 촌에로 인이 많으니 이런 우려도 지당한 것이었다. 촌민들의 근심을 해소하기 위해 하윤룡은 집집마다 방문하여 설득하고 촌민들이 즉시 소득을 증가할 수 있는 방법을 탐색했다. 관광객들의 방문으로 촌민들의 특산물 판로가 열리면서 그가 고안한 방법이 성공적이었음은 사실상 증명되었다. 촌민 오해숙이 담근 배추김치는 시름하고 개운한 맛으로 관광객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아 늘 눈 깜짝할 사이에 몇십근이 모두 매진되어 촌을 나서지 않고도 소득을 늘리게 되었다.

올해 촌에서는 캠핑카 야영지를 전방위적으로 업그레이드하고 기반시설을 일층 보완했다. 월청진에서는 63만원을 투입해 야영지 규모를 확대하고 수도와 전기 공급 시설을 보충했다. 야영지의 슈퍼마켓에 들어선 다양한 물품이 즐비한 가운데 결만촌에서 생산한 입쌀, 꿀 등 특산물이 눈에 가장 잘 띄는 위치에 진

렬되어있다. 조선족 특색 음식점이 개업하면서 관광객들은 초두부, 장국 등 특색 음식을 맛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선족의 독특한 음식문화를 체험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공유 남새밭, 벼 도급재배 등 혁신적인 대상 또한 속속 시행되고 있다. 공유 남새밭에서 관광객들은 직접 신선한 남새를 채집할 수 있으며 벼 도급재배 대상은 관광객들이 농작물 재배과정에서 전원생활의 즐거움을 느끼게 하고 있다.

“구매하지 않는 것보다 맛보지 않는 것이 더 두렵다.” 이 말은 ‘반공기 쌀밥’의 이야기에서 비롯되었다. 일반 관광객들과 달리 차에서 밥을 짓는 데 익숙한 캠핑카 관광객들에게 현지 입쌀을 홍보하기 위해 결만촌에서는 차량마다 반공기의 쌀밥을 선물하는 묘수를 생각해냈다. 자칫 알볼 수도 있는 반공기 쌀밥은 시장을 개척하는 ‘금일쇠’로 되었다. 결만촌당지부 서기 송국철은 2024년 결만촌의 입쌀은 2개월이 채 안되는 기간에 모두 팔렸으며 사천, 산서, 상해 등 지역의 관광객들은 단골로 되어 일찍부터 헛쌀이 나오기를 기다렸다고 말했다.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근 1만명의 관광객이 결만촌을 찾았으며 촌의 입쌀, 꿀, 김치, 토닭 등 특산물 매출량이 1만근을 넘어서면서 촌민들에게 실제적인 수입을 안겨주었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캠핑가가 줄지 어 결만촌에 들어서는 시기가 되면 야영지 모퉁을 옆에서는 구성된 조선족 민요가 다시금 울려 퍼지고 전통 복장을 차려입은 아가씨들이 열정적으로 관광객들에게 상모춤을 가르치며 순대 만들기를 체험 수업도 열린다. 관광객들은 이곳에서 편안하게 묵으며 다양한 음식을 즐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선족 민속을 깊이있게 체득하면서 잊지 못할 추억을 남기게 된다.

홍보 전단지 한장으로부터 완전한 관광산업사슬을 구축하고 반공기 쌀밥으로부터 인당 소득이 안정적으로 증가되기까지 결만촌은 실제 행동으로 향촌 진흥의 길이 다져진 내실을 구현했다. 오늘날 산업이 번창하고 생태적이고 살기 좋으며 향풍이 문명하고 생활이 부유한 향촌 진흥의 장려한 화폭이 희망으로 가득찬 이 땅에서 서서히 펼쳐지고 있다.

/ 길림일보

